

십 일 조	강보영(이순자)	강 호(정운숙)	고계선(홍성운)	김건용(배경미)	김광민(이명희)	김규영(김명자)	김기택(유윤주)	김병진(신민정)
	김복기(정미경)	김삼숙(정순옥)	김석철(이경순)	김수환(정선영)	김영호(이경화)	김용태(이예자)	김재길(임해숙)	김재영(이와숙)
	김태훈(서상순)	노홍근(이남례)	민정순(유혁신)	박경희(최정옥)	박규범(김경애)	박민우(최유애)	박병문(심숙경)	박종영(김은숙)
	박종일(심현숙)	방인대(이정희)	소병일(안희정)	손중목(계혜정)	심상균(윤정희)	안종현(최정진)	양대수(정숙희)	양만기(김명숙)
	오문식(조아라)	유형수(이영순)	윤여성(이월희)	이규석(권효순)	이기주(심미향)	이병무(이옥연)	이성진(배미정)	이새형(고희옥)
	이순우(신현숙)	이승준(박선영)	이화행(김은경)	인두일(박옥자)	전호열(서하순)	정길선(김우순)	정병철(김혜진)	정수영(금향순)
	정연수(한보영)	정용목(신연자)	정화순(박재범)	조성욱(박문수)	조용욱(신영자)	주기태(정해순)	주재훈(황미순)	주진미(김선화)
	최덕선(서진희)	최영삼(김희영)	최원식(이성삼)	최희삼(김은경)	하상환(김명숙)	한명철(박희순)	홍종호(손정연)	강민영 김경복
	김경산 김경순	김교선 김무연	김민정 김영애	김영희 김영희2	김예찬 김용복	김정희 김혜지	나옥순 노정설	목영란 문순주
	문형주 박민경	박연순 박연희	박해자 박향정	배순아 서경자	서정희 신정자	성우현 송공숙	송정수 신세이	신영우 신정식

양정자 오서을 유윤수 이아미 이정은 이현숙2 이희숙 장경남 장주희 전공주 정순임 정연순 정정자 조경옥 조나영 조순자 조연순 조자순 조형준 차경자 차선미 채서연 채주희 최현주 최현주 한상란 황순희2 무병2

감 사	강 호(정운숙)	김복기(정미경)	김사진(김윤희)	김세권(박미경)	김원기(윤영란)	김종진(신근선)	김주영(박애민)	김진선(이화진)
	김태경(차덕자)	박기봉(최명희)	박민우(최유애)	박성림(김희경)	박종일(심현숙)	방인대(이정희)	소병일(안희정)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양만기(김명숙)	연정웅(이복단)	우동수(전기옥)	원종호(정기경)	유병득(하명숙)	윤유수(곽미수)	이순우(신현숙)
	이영진(박용애)	이화행(김은경)	정길선(김우순)	조용욱(신영자)	주재훈(황미순)	최영삼(김희영)	하상환(김명숙)	한동섭(곽경옥)
	홍경표(이임자)	홍성운(고계선)	강소연 권민서	권윤서 김경순	김다습 김동현	김시랑 김영순	김영애 김예찬	김왕순 김정자
	김태성 김태환	김태희 김하진	김행자 남희우	마병국 박기화	박민경 박연순	박예철 박우림	박재민 박주현	박해자 반옥림
	백누림 서경자	신정자 신진아	안도환 양대진	연성옥 염규옥	오서을 오순애	이규호 이기주	이상화 이선화	이숙희 이시은
	이양자 이영순2	이인식 이재민	이재우 이하준	이학순 이희숙	임경임 임영란	임옥례 장경남	장주희 정순임	정연순 조경옥
	조연순 조자순	지화진 최영훈	하영례 한제나	한 진 무병26				

선 교	강 호(정운숙)	김돈하(박원미)	김복기(정미경)	김재동(이와숙)	김진배(윤현구)	박종일(심현숙)	방인대(이정희)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양만기(김명숙)	염규환(김명일)	이순우(신현숙)	이정미(박선희)	이화행(김은경)	이환구(박희숙)	조성욱(박문수)
	주재훈(황미순)	최덕선(서진희)	최영삼(김희영)	하상환(김명숙)	홍종호(손정연)	마병국 박해자	서경순 송정수	양정자 이기주

장주희 정순임 최미경 홍애란 34구역 무병2

장 학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양만기(김명숙)	이화행(김은경)	주진미(김선화)
-----	----------	----------	----------	----------	----------

구 제	강 호(정운숙)	김영옥(김명자)	김진배(윤현구)	서상윤(이상희)	소병일(안희정)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양만기(김명숙)
	이화행(김은경)	주재훈(황미순)	주진미(김선화)	최희삼(김은경)	하상환(김명숙)	이희숙 조경옥		

건 축	강 호(정운숙)	김바울(임미정)	양만기(김명숙)	최덕선(서진희)	손중목 이상자	한제민
-----	----------	----------	----------	----------	---------	-----

구역에배현황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1	김현순	3	17	신연자		33	이영순1	5	49	심미향	2	65	홍현숙	3	81	박미경2	1
2	김경순	6	18	정운숙		34	김복희	6	50	정미경	5	66	이정미		82	오순오	5
3	이월희	3	19	박병운	4	35	곽경옥	3	51	김급자	4	67	김옥진	4	83	김선화	4
4	박원미	8	20	윤병준	2	36	이정희		52	이영숙1	5	68	이순자	2	84	조향순	
5	이상희		21	박예철	5	37	이선호		53	권혁화	3	69	최병덕	3	85	이현자	
6	정영희		22	주현진	7	38	김은배	3	54	장태정	2	70	양정자		86	김경애	4
7	계혜정	2	23	김완숙	2	39	김은경1	4	55	김명원		71	윤현구	4	87	백영득	4
8	최미경	3	24	김경순1		40	강경숙1	4	56	김명숙	5	72	이영순2		88	조연숙	5
9	안비화	3	25	조복실	4	41	박희순	5	57	김경복	2	73	최유정	6	89	최외숙	3
10	고종신	3	26	김옥아	3	42	이복단		58	홍순애	6	74	김명자2	4	90	천병애	
11	이양자		27	조동순	1	43	배정숙	2	59		7	75	김영숙	4	91	신현숙	3
12	장보균		28	박영신	4	44	심현숙	3	60	이정자1		76	윤영선	6	92	이순례	4
13	윤정희1	5	29	채은기	3	45	박용애	3	61	이계옥	4	77	정해순	3	93	서윤영	3
14	김용복	4	30	목영란		46	김동선	3	62	김정복	4	78	김연숙		94	황미순	3
15	백인주	2	31	서향순	2	47	이혜자	5	63	김진경	3	79	차선미	3			
16	김희경	5	32	김혜정	5	48	이태숙		64	이은영	3	80	마경희	3			

지난 주일 통계(현장 출석)

장 년 : 615명	청 년 : 57명	교회학교 : 234명	헌 금 : 41,536,200
---------------------------	--------------------------	----------------------------	---------------------------------

선 파 교 사	송 력	• 박남호·최해정 (인도네시아/5남전도회, 다비다)			
	교 협 력	• 이시몬 (타기/3남전도회)	• 강남취 (인도/6남전도회)	• 류옥순 (W곡/마리아)	• 심바울 (베트남/루디아)
		• 박희원 (캄보디아/4남전도회)	• 이응모 (나미비아/2남전도회)	• 이규준 (캐나다/마르다)	• 이정요 (A곡/사라)
		• 박찬진 (태국/로이스)	• 박윤수 (페루/8남전도회)		
		• 임찬호 (A곡/리브가)	• 성시준 (A곡/1남전도회)	• 정귀화 (A곡/7남전도회)	• 아커리 (A곡/청년교구)
형 제 교 회	기 천	• 한빛 (용인 김병태 목사 / 리브가)		• 말씀의 샘 (안성 남이환 목사 / 마르다)	
	원 강	• 새로남 (안양 박성우 목사 / 리브가)		• 이삭 (남양주 박한용 목사 / 리브가)	
		• 주안의 (광주 조용흠 목사 / 한나)		• 안양생병원 (안양 김강산 목사 / 에스더)	
		• 에함 (인천 김상민 목사 / 사라)		• 하이사랑교회 (광주 송대근 목사 / 마리아)	
		• 세우리 (주문진 박영만 목사 / 청년교구)		• 역둔 (삼척 김중현 목사 / 3남전도회)	
충 청 전 경 상 제 해 군 선 교 회	충 청	• 산계(강릉 나종수 목사 / 9남전도회)		• 소망 (양구 하용관 목사 / 로이스)	
		• 하나인(황성 국균호 목사 / 1남전도회)			
		• 동점 (괴산 권혁인 목사 / 2남전도회)		• 금암 (옥천 장재수 목사 / 사라)	
		• 원동 (옥천 김사무열 목사 / 다비다)			
	전 라	• 마치 (완주 이창수 목사 / 한나)		• 신흥 (고흥 진용섭 목사 / 7남전도회)	
• 쌍지 (순천 박광현 목사 / 6남전도회)			• 동강중앙 (나주 우재경 목사 / 에스더)		
• 계남제일 (장수 허진갑 목사 / 한나)			• 신기 (완도 정보영 목사 / 에스더)		
경 상		• 세간 (의령 김진홍 목사 / 4남전도회)		• 가조반식 (거창 허경주 전도사 / 로이스)	
	• 비진도 (통영 김덕조 목사 / 루디아)		• 영광스러운 (거제 이선주 목사 / 4남전도회)		
	• 칠성 (청도 박상호 목사 / 마리아)		• 부천 (문경 강형권 목사 / 4남전도회)		
	• 당항포 (고성 진철학 목사 / 9남전도회)		• 생들 (의성 박종녕 목사 / 다비다)		
제 주 외 해 군	주 외	• 임봉 (구미 이계훈 목사 / 마르다)		• 구미라틴 (구미 김재훈 목사 / 권사화)	
		• 첫주님의 (양산 서동학 목사 / 마리아)			
		• 신재주(갈릴리 (제주 김덕근 목사 / 드보라)		• 섯산 (강서 오해숙 목사 / 마르다)	
		• 오를랜드 조은 (뉴질랜드 나영규 목사 / 권사화)		• 물대둥산 (강서 방길사한 목사 / 1남전도회)	
	• 몬트리올라틴 (캐나다 강승희 목사 / 3남전도회)		• 이음숲 (강서 손성찬 목사 / 2남전도회)		
해 군					

군 선 교 회	목 사	김수환 ukc97@hanmail.net	김용국 kyk8214@naver.com	오문식 oanstr@nate.com
		김영석 seok0017@naver.com	김바울 kbu1826@gmail.com	
	전 도 사	서은희 ksjbsys@naver.com	김혜숙 gongone21@daum.net	최선미 sunmi9013@hanmail.net
	교육목사	김정훈 sfc-ants@hanmail.net		
	교 육 전 도 사	박정숙 yearam1216@hanmail.net	김주영 prisethelord@naver.com	최동권 choikd92@gmail.com
		현애송 hys930811@naver.com	김찬양 kimchanyang94@gmail.com	
	장 로	[원로] 국병훈 마외출 임규환 전웅부 서상윤 방인대 강 호 [은퇴] 김석종 문 홍 유인만 서창대 정하남 서문용 박재인 연정웅 조용욱 조성준 이기훈 박정수 주기태 김삼숙 박규범 이영진 [사무] 강 권 이희용 이규석 이화행 임경우 박희순 김봉기 손중목 김세권 박기봉 황상호 하상환 김근석		
	지 휘	박유찬 주창성 김종명 김영호 김지현 이예자 김선화 김종민		
	반 주	이병석 이환구 정하석 정익수 김영호 김태희 문정인 김세미 황은정 허은빈 강세미 정현지 조은길 유진솔 선 휘 이정아 배예민 김사론 이효정 유태남 이은영 하서희 이성혜 김주현 송유정		

장 년 모 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오전 5:30

주 일 1부 예 배: (주) 오전 07:30	주 일 2부예배: (주) 오전 09:30	주 일 3부예배: (주) 오전 11:30
주 일 4부(청년)예배: (주) 오후 01:30	주 일 저녁예배: (주) 저녁 07:00	
수 요 지 녀 예 배: (수) 저녁 07:30	금 요 기 도 회: (금) 저녁 09:00	구 역 장 모 임: (금) 오전 09:40
람 원 성 경 감 좌: (목) 오전 10:00	늘 푸 른 학 교: (화) 오전 10:30	L . T . C: (화) 오전 10:00

교 회 학 교

영아부: (주) 오전 11:30 영아부실	유아부: (주) 오전 11:30 유아부실	유치부: (주) 오전 11:30 유치부실
유년부: (주) 오전 11:30 유년부실	초등부: (주) 오전 11:30 초등부실	소망부: (주) 오전 09:30 소망부실
중등부: (주) 오전 10:45 중등부실	고등부: (주) 오전 10:45 고등부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막7:18-23)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 가장 많이 부딪히신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들이었습니다.

1. 장로들의 유전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수천년이 넘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소중한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문제는 이런 안식일 전통이 어느 순간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사라 지고 율법의 형식, 껍데기만 고수하여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주초금지, 새벽기도회, 십일조와 주일성수 등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신앙 의 전통들이 오늘날 시험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칙 없는 타협과 결정으로 전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신앙의 목표와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 손씻기 전통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결례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님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단지 손을 씻는 위생의 문제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를 부정하다고 지적한 것에 화 를 내십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제의적 의미’이며, 하나님께 드 려지는 제물이 부정하다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각 종 정결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하다, 부정하다, 자신들이 평가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자라고 하였고 오히려 율법을 허 무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마23:23,27).

3. 안에서 나오는 것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15절)는 어록을 남깁니다. 밖의 것이나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문 제, 마음의 상태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정결한 것입니다(벧전3:4,롬12:2). 성경은 마음이 새롭게 되 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변화를 앞에 두고 본질을 훼손하지 않 으면서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